

★ 2005년 06월 19일 ★ 충북 기출문제

1. 다음 글에 대한 설명이 잘못된 것은?

형님 온다 형님 온다	분(粉)고개로 형님 온다.
형님 마중 누가 갈까	형님 동생 내가 가지.
형님 형님 사촌 형님	시집살이 어땠데까?
이애 이애 그 말 마라	시집살이 개집살이.
앞밭에는 당추(唐椒) 심고	뒷밭에는 고추 심어,
고추 당추 맵다 해도	시집살이 더 맵더라.
동글동글 수박 식기(食器)	밥 담기도 어렵더라.
도리도리 도리 소반(小盤)	수저 놓기 더 어렵더라.
오 리(五里) 물을 길어다가	십 리(十里) 방아 짚어다가,
아홉 솔에 불을 때고	열 두 방에 자리 걸고,
외나무다리 어렵대야	시아버님같이 어려우랴?
나뭇잎이 푸르대야	시아머니보다 더 푸르랴?
시아버니 호랑새요	시아머니 꾸중새요,

- ① 가부장적인 사회의 모습을 반영하고 있다.
- ② 선조들의 지혜가 담긴 교훈적인 내용이다.
- ③ 민중에 의해 창작되어 전승되어 온 구비 문학이다.
- ④ 시집살이의 고통을 해학적으로 형상화하였다.

2. 다음에 제시된 한자 중 독음이 맞는 것은?

애로 - 누설 - 파탄 - 쇄도

- ① 哀路 - 漏設 - 派綻 - 殺到
- ② 隘路 - 漏設 - 破綻 - 殺到
- ③ 哀路 - 漏泄 - 破綻 - 殺到
- ④ 隘路 - 漏泄 - 破綻 - 殺到

3. 다음 글의 () 안에 들어갈 적당한 말은?

공 치 : 으디를 싸댕겨?
구포덕 : (여전히 갓난애의 얼굴에 눈길을 박은 채) 모실 갔다 왔소!
공 치 : 모실? 아니 큰 청승에 모실이여?
구포덕 : (하늘을 쳐다보며) 그냥 구경하고 땡겼제 머…….
공 치 : 슬슬이 녀은 으디 갔어?
구포덕 : (고개를 살래살래 내젓는다.)
공 치 : (마루 위에 벌렁 드러누워 버리며) 이고, 도삼아아~.
구포덕 : (무표정한 얼굴)
공 치 : (드러운 채) 아무 말도 아니여! () 그래 뱃놈은 물 속에서 죽어사 쓰는 법이여……. 그것 이 팔자나라아~ (열을 올려) 나는 안 죽어! 그여코 배를 부리고 말 것이여! 뭇 달 때마다 만선으로 배가 터지는 때가 반다시 있고 말고!

- ① 처절하게
- ② 낭랑하게
- ③ 경쾌하게
- ④ 아름답게

4. 다음 사설시조의 밑줄 친 '장스'에게 어울리는 사자 성어는?

宅(택)들에 동난지가 사오. 저 장스야, 네 황후 그 무서시라 웨는다. 사자.
外骨內肉(외골내육), 兩目(양목)이上天(상천), 前行(전행) 後行(후행), 小(소)아리 八足(팔족) 大(대)아리 二足(이족), 淸齋(청장) 으스스스스 동난지가 사오. 장스야, 하 거북이 웨지 말고 게젯이라 허렴은.

- ① 虛張聲勢(허장성세)
- ② 炎涼世態(염량세태)
- ③ 附和雷同(부화뇌동)
- ④ 能小能大(능소능대)

12. 위 글의 밑줄 친 ㉠과 표현 방식이 비슷한 것은?

- ① 펜은 칼보다 강하다.
- ② 얼룩백이 황소가 해설피 금빛 게으른 울음을 우는 곳
- ③ 돌담에 속삭이는 햇발같이, 풀 아래 웃음짓는 샘물같이
- ④ 향기로운 님의 목소리에 귀먹고 꽃다운 님의 얼굴에 눈멀고

13. 다음 <보기>의 ()안에 들어갈 말로 어울리지 않은 것은?

<보기> 귀가 ().

- ㉠ 어떤 말을 듣고 그럴 듯하게 여겨져 마음이 쏠리다.
- ㉡ 뜻밖의 반가운 소리를 들어 막혔던 귀가 뚫리는 것 같다.
- ㉢ 남이 자기에 대한 말을 하는 것 같다.
- ㉣ 너무 자주 들어 듣기 싫다.
- ㉤ 잔소리를 늘어놓아 듣기 싫다.

- ① 가렵다
- ② 솔깃하다
- ③ 아프다
- ④ 여리다

14. 다음 중 속담의 뜻풀이가 옳지 않은 것은?

- ① 미꾸라지 모래파기 - 일을 해도 표시가 나지 않는다.
- ②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 - 혼자 하는 것보다 여럿이 힘을 합치면 더 낫다.
- ③ 일단 먹기는 굶감이 달다 - 겉으로 보기에 좋은 것이 좋을음을 이르는 말
- ④ 소경 문고리 잡듯 - 우연히 어떤 일을 이루거나 맞히는 것을 이르는 말

15.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 ① 향가는 삼국유사에 14수, 균여전에 11수가 전한다.
- ② 경기체가는 민요적 시가로, 장가, 여요, 속요 등으로도 불린다.
- ③ 약장은 목적성이 강한 문학으로 귀족 계층만 향유하다가 소멸되었다.
- ④ 맹사성의 강호사시가는 최초의 연시조이다.

16. 다음 글의 전개방식과 유사한 방법으로 글 쓰기에 적당한 소재는?

사람은 무엇을 위하여 사는가? 이상(理想)을 위하여 산다. 이상을 위하여 산다는 것은 오직 인간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特權)이다. 여타의 동물은 이상이라는 것이 없다. 다만, 현실(現實)만을 위하여 산다. 즉, 먹기 위하여 살고, 살기 위하여 먹는다. 그러나 인생(人生)은 그렇지가 않다. 먹기도 해야 하겠지만, 먹는 것만으로는 만족하지를 않는다. 그리하여 사람은 빵만으로 사는 동물이 아니라고 하였다.

- ① 시나리오 희곡
- ② 내장산의 가을 풍경
- ③ 아버지의 일생
- ④ 환경오염의 실태

17. 토론할 때 사회자의 역할이 아닌 것은?

- ① 토론 장소와 토론 참가자의 자리를 미리 결정한다.
- ② 토론의 주제를 미리 알려 주어 토론이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한다.
- ③ 토론자에게 사실과 의견을 명백히 구분하도록 주의를 준다.
- ④ 토론자들의 주장을 정리하고 거기에 따른 자신의 주장을 펼친다.

18. 다음 중 설명하는 단어가 ()안에 들어갈 수 없는 것은?

- 디디고 다닐 수 있게 드문드문 놓은 평평한 돌
- 마루 아래 같은 데 놓아 디디고 오르내릴 수 있게 한 돌
- 문제 해결의 바탕의 비유

